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전북도자원봉사센터, 한국서부발전 후원으로 꾸러미 나눔

전북도,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인증사업자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격리자·가족·지역소외계층 등 도움 필요한 500명에 전달

전북도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경영체 400개소 육성을 목표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협회의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사업 적합성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인증사업자로 지정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서'가 발급(인증유효기간 3년)되며, 농촌융복합산업 용자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업지원, 소비자 판촉전, 인증표시 부착, 안테나숍 입점(도내 7개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경영체를 홍보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인증경영체는 317개소로(전국 1,909개소) 전국 최다 선정률을 기록했으며, 인증경영체의 매출액 및

일자리 수는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청과 정보안내는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전북6차산업.com)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유선·방문·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단순히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가경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경영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4일 한국서부발전(주)의 후원을 받아 '안녕서부공감! 함께할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꾸러미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자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 황우선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이기선 센터장 및 군산시센터, 익산시센터, 김제시센터, 부안군센터 등 4개 시·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꾸러미를 포장했다.

만들어진 꾸러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격리자 및 가족, 지역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500명에게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비단, 누르지 등의 물품을 지역업체를 통해 구매했으며, 군산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분도 꾸러미 품목에 포함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황우선 본부장은 "지역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4일 한국서부발전(주)의 후원을 받아 '안녕서부공감! 함께할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꾸러미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음뽀"이라며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와 역할을 찾아 지역구성원으로서 함께 할것이다"고 말했다. 이기선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속

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역활동 및 안전물품 보급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해 안전한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팸투어로 관광산업에 활력을'

도, 주한 외교 인사·인플루언서 등 참가 연중 8회 추진 새만금·인근 3개 시·군 주요 관광지 방문·홍보

전북도는 급변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홍보와 함께, 인근 군산, 김제, 부안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로 새만금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팸투어'를 연중 8회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참가 대상은 주한 외교 인사, 인플루언서,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이다.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은,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해 체험한 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관광상품·코스 개발 등 유·무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여행·관광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언택트 관광, 재생 여행, 역사·문화탐방 등의 차별화된 팸투어를 추진한다.

▲군산 청암산, 김제 망해사 등 생태·자연을 중심으로 적은 인원이 함께하는 '언택트 관광', ▲군산 신

시도, 김제 벽골제 등 '눈어촌 체험관광'을 통해 머무는 동안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재생 여행', ▲부안 개암사 및 매점테마관, 김제 집강소 등 유·무형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접근하는 '역사·문화 탐방' 등이 계획돼 있다.

이동현 도 새만금개발과장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상황 홍보와 더불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상품·코스 발굴로, 숨겨진 명소를 구석구석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변화된 여행·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위축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탄소포인트제 동참하세요"

전북도, 에너지 절약·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1석2조 정책

전북도는 4일 전기·수도·가스·자동차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탄소포인트제'(가정 및 상업시설)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도민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포인트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도내 전체 세대수(81만6,000세대)의 약 27%인 22만세대가 가입하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1년에 2회(상·하반기)

제공하며, 과거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최대 10만원(반기별 5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홈페이지(www.cpoin.or.kr) 또는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 다른 포인트제인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해 도내 309명이 참여했다.

올해 참여대상인 315명을 지난 2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car.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추진 결과 도내 3만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소나무 530만 그루의 식재효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22만 세대 중 상·하반기 총 10만여 세대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309명 중 약 57%인 178명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허정 도 환경복지국장은 "전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 상업 시설 및 자동차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두류·맥류 계약재배 자금 융자 지원

전북도가 올해부터 두류(콩·녹두·팥)와 밀을 취급하는 농협,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무이자) 지원한다.

도는 두류·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제공하고, 가공업체에는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금은 총 562억원으로 융자 449억원(80%), 자본담 113억원(20%)로

이뤄지며, 융자는 업체당 최대 30억원(밀 10억원)까지 무이자, 5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품목 및 경영체 유형에 따라 담당 사업관리기관(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계약재배지원과 더불어,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논타작물과 국산밀 생산단지

를 선정하며,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9억원으로 28개 생산단지에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전문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타작물 단지 11개소에는 56억원으로 단지화에 필요한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2월 농식품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규 공모에 전국 2개소 중 1개소가 선정돼 장기간 고품질 유지할 수 있는 저장·유통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구제역 방역예산 192억원 확보

전북도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4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53억원을 추가 확보, 총 19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구제역 예방 중점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38억원, ▲예

방접종기술비 36억원, ▲스트레스완화제 등 18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중 추가 확보한 53억원은 ▲구제역 예방백신에 47억원, ▲예방접종기술비에 5억원, ▲스트레스완화제에 1억원이다. /유호상 기자

